

2024. 3. 11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본부
도시공간연구실

| | |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도시공간연구실장 | 맹다미 | 02-2149-1178 |
| 선임연구위원 | 민현석 | 02-2149-1057 |
| 서울연구원 누리집 | http://www.si.re.kr | |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서울연구원, '서울 감성 여행'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

- 서울연구원, 도보여행 프로그램 '서울 감성 여행'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
- 하나의 살아있는 도시 박물관인 서울 도심에서 근현대 서울의 기억과 감성을 공유
-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활용하여 미래유산에 담긴 가치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

서울연구원(원장 오균)은 새봄을 맞이하여 '서울 감성 여행 (Seoul Odyssey)'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서울연구원 누리집 (<https://tour.si.re.kr/>)에 게시했다고 밝혔다. 이를 통해 시민들은 하나의 거대한 생활사 박물관인 서울 도심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전문적인 해설사의 도움 없이도 근현대 서울의 감성이 담긴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.

○ 지난 2018년 서울연구원은 도보여행 안내서 『서울 감성 여행: 미래유산에 담긴 서울을 만나다 1, 2, 3』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바 있다. '서울 감성 여행'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에서는 서울 도심부에 산재한 서울 미래유산을 포함하여 98개의 문화유산을 8가지 주제별 답사코스로 연결하였다.

- 단순히 도보 루트를 따라 접하는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유산을 소재로 전체적인 주제별 답사코스를 설정하고 다시 그 속에서 거리상으로 인접한 여러 미래유산을 소개하였다. 더불어 도보여행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아날로그 감성의 도보 관광용 지도도 함께 제작하였다.

- 현장에서 핸드폰을 활용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‘서울 감성 여행’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며, 일부는 외국 방문객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하였다.
 -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고, 최근 한류의 부상과 함께 서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외국인 방문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.
 - 특히 新천변풍경(Cheonggyecheon: Reflection of Time)과 구보씨와 함께하는 도보 탐사(A Walk through Seoul with Mr. Kubo)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근현대 서울의 감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숭실대학교 프레이저(Jay Fraser) 교수와 함께 영문으로 제작하였다.
 - ‘서울 감성 여행’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는 8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 위치한 미래유산을 짧게는 90분, 길게는 반나절 동안 도보여행으로 찾아가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 도보뿐만 아니라 지하철, 시티투어버스, 케이블카 등 다양한 보조 교통수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GPS를 활용하여 위치도 검색할 수 있다.

<서울 감성 여행>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의 8가지 에피소드

| 배경 | 에피소드 | 이동수단·소요시간·거리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920년대 | 新천변풍경 | 도보 150분, 5.0km |
| 1930~40년대 | 근대도시 경성의 문화 기행 | 도보/지하철 240분, 8.0km |
| 1950년대 |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길 | 도보 90분, 3.0km |
| 1960년대 | 억압된 욕망으로 갈등하는 여성의 일탈 여행 | 도보 90분, 3.0km |
| 1960년대 | 낙도 어린이들의 서울 나들이 | 도보/시티버스 240분, 8.0km |
| 1960년대 | 성공을 찾아 떠났던 성철의 서울살이 | 도보/케이블카 120분, 4.0km |
| 개항 이후 | 구보씨와 함께하는 도보탐사 | 도보 150분, 5.0km |
| 개항 이후 | 성하동춘 건축유람(城下東村 建築遊覽) | 도보 150분, 5.0km |

- 미래유산이나 여러 관련 장소에 대한 정보 외 이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나 소설, 시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. 미래유산인 이만희 감독의 <귀로>와 유현목 감독의 <수학여행>에 촬영된 과거 서울의 모습을 현장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통하여 직접 감상하고 현재와 비교해 볼 수 있다. 박완서의 『나목』, 손창섭의 『길』에 묘사된 당시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.
 - 유현목 감독의 <수학여행>에서 낙도 어린이들이 방문했던 서울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미래유산과 여러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‘낙도 어린이들의 서울 나들이’ 코스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.
 - 또한 ‘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의 길’과 ‘성공을 찾아 떠났던 성철의 서울살이’에서는 박완서의 등단작인 『나목』과 손창섭의 『길』에서 느꼈던 1950년대와 60년대 서울의 감성과 감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.
-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(<https://futureheritage.seoul.go.kr>)에서, 이 외에 서울에 소재한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는 서울연구원 연구데이터서비스(<https://data.si.re.kr>)

의 ‘서울의 근현대 유산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“이번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통하여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서울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등 문화경쟁력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겠다”라고 전했다.

<서울감성여행> 오디오가이드 서비스

